

# 잠재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문화의 영향: 캄보디아, 몽골, 네팔, 페루 및 르완다 대학생 사례 비교 연구

안진원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유대현 (한동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 국문 요약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정부(외교부)의 국제개발협력 증점협력국가 24개국 중에서 캄보디아, 몽골, 네팔, 페루 그리고 르완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문화적 변수인 불확실성 회피성이 개도국 5개국의 잠재적 기업가적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사례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5개국 응답자들의 성별 분석을 통해 남녀 응답자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의 정도를 비교하고 성별 기업가 지향성이 문화적 변수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본 사례 비교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5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은 개인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내재적 통제력(Locus of Control)과 혁신성(Innovativeness)을 묻는 세부 질문을 만들었고, 문화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회피성(Uncertainty Avoidance)의 정도를 묻는 질문을 만들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이번 사례 비교연구에서는 불확실성 회피성이 높을수록 기업가적 지향성도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성별 분석에서도 동일했다. 한편 남성 응답자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이 여성 응답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핵심주제어: 기업가정신, 불확실성 회피성, 내재적 통제력, 혁신성

## I. 서론

### 1.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유엔은 2015.9월 유엔총회에서 2015년 종료되는 새천년발전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을 대체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였다. 이 새로운 의제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30년을 기한으로 두고 있다(UN, 2016).

17개의 목표들 중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8번째 목표는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 성장과 생산적인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목표 8의 세부 목표는 최빈국의 7%대의 꾸준한 경제성장, 생산적 활동과 일자리 창출 및 기업가정신과 혁신, 창조성을 지원하는 발전지향적인 정책 수립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수립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UN, 2016).

이와 같이 유엔은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 요소로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언급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수 요소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진행된 기업가정신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기업가정신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Kiss, et al.(2012)은 지난 20년간 발행된 주요 논문 88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제기업가정신 연구의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대부분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거나 떠오르는 경제 강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였다.

본 사례 비교연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가정신 연구를 위해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사례 비교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현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잠재적 기업가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연구하여 이들 국가들의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망을 알아보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1.2 각국 현황

캄보디아, 몽골, 네팔, 페루, 르완다의 5개국은 각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개발도상국이다. 각 국가는 우리정부(외교부)의 제2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한 24개 중점협력국가(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에 포함되어 있다.

\* 제1저자,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ahn@handong.edu

\*\* 교신저자, 한동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dhyoo@handong.edu

· 투고일: 2016-01-12 · 수정일: 2016-07-10 · 수정일: 2016-08-28 · 게재확정일: 2016-08-30

각각 아시아(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프리카(르완다), 중남미(페루) 3개 대륙의 5개국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정책에 대한 함의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경제성장을 돕기 위한 견인차로서 각국의 기업가정신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1> 우리정부(외교부)의 증점협력국가 현황

지역(개수)	국가명
아시아(11)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아프리카(7)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중동/CIS(2)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중남미(4)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3)

5개국의 기업가정신 또는 창업 관련 정책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2.1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글로벌 경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로, 최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가입한 이래 ‘동남아시아국가 자유무역협정’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국가 투자협력’에도 가입하였다. 더 나아가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 중 첫 번째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국가이다. 비록 캄보디아는 여전히 최빈국에 속하여 있지만, 연간 경제성장률은 지난 5년간 6~7%대를 기록하고 있다(World Bank, 2016). Dana(2007)는 캄보디아의 비즈니스 환경이 다른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에 비해 더 자유롭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한 의복과 신발 수출 산업은 눈의 띄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Sokthol, 2015). Park & Kang(2010)는 아시아 4개국인 중국, 한국, 몽골, 캄보디아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캄보디아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캄보디아가 가야할 길은 멀다. 각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 비교하는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6(World Bank Group, 2016a)에 의하면, ‘사업하기 쉬운 정도’에서 캄보디아는 189개 국가 중 127위에 머물고 있다. 여전히 기업가는 여러 가지 규제 장벽에 막혀 있고, 허가와 신용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또한 법치의 부재와 인프라의 부족, 높은 에너지 사용 비용, 부패, 그리고 미개발된 인적자원은 캄보디아의 비즈니스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불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포함하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존중 부재와 지권과 지적재산권의 부재는 캄보디아 내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US government, 2016a).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중소기업 발전 기구(SMEs Development Framework 2005)와

전략적 국가발전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09)을 통해서 규제와 제도 개혁, 재정 접근성 강화 및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Sokthol, 2015).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2015-2025 캄보디아 산업개발정책의 4대 전략 중에 하나로 ‘중소기업 개발 및 현대화’를 설정하여, 중소기업육성을 국가 산업 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Royal Government of Cambodia, 2015). 현재 캄보디아의 상무부는 ‘MoC 101 Incubator’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e-commerce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위 프로그램은 초기 경쟁 발표를 통해 가능성 있는 창업가들을 발굴한 뒤 그들을 교육하고 이후 최종 경쟁을 통해 투자를 지원받을 10개 팀을 가리는 대회이다(Cambodia Ministry of Commerce, 2016).

### 1.2.2 몽골

몽골의 전통적인 산업은 농업과 목축이다. 그러나 1990년대 소련으로부터 분리된 이후 몽골 정부는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를 채택하였고 주요 산업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인플레이션과 실업, 빈곤 등의 국가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몽골은 광산산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켰다. 광산업과 관광업의 부흥을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2011년 10%대를 기록하였다(강유진, 2014). 그러나 2013년, 새로운 정부에 의해서 바뀐 해외투자법은 몽골의 자원 민족주의를 우려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해외투자자들로부터 신용을 잃게 된다(Gan-Och & Ahn, 2014). 이로인해 수출 이익과 성장률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몽골 정부의 보조금은 기본 공산품 제공의 원활성과 토지 소유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주로 지출되며 중소기업 지원에는 쓰이지 않고 있다. 몽골의 은행들도 이러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이익을 얻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더하여 몽골의 중소기업들은 국가 소유의 중소기업들과도 경쟁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법과 제도의 부실함 역시 몽골의 비즈니스 환경의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The US Government, 2016b).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일반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들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Doing Business 2016에 의하면 몽골은 189개 국가들 중 기업하기 좋은 56위의 국가로 언급된다. 특히 ‘창업’ 영역에서는 36위에 오를 정도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몽골 정부는 기업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 기준을 없애고 창업 기업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였다(World Bank Group, 2016b). 또한 몽골은 현재 미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전념하고 있어서 2017년까지 화물 운송에 특화된 국제 공항을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 생산을 위해 화력 및 수력, 풍력, 태양력 발전소 개발을 위해 대규모 자본을 투자할 예정에 있다(The US Government, 2016c).

국제노동기구와 몽골고용자연합은 몽골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적 환경 개선과 세금 구조 단순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중소기업에게 제공

되어야 하고, 노동법이 정비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하는 다양한 훈련 코스, 수출 시장 활로를 열어주는 정책 시행, 그리고 정부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제안하였다(ILO, 2015).

### 1.2.3 네팔

네팔의 주요 산업은 농업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전체 고용인구의 66%이며 전체 GDP의 34%를 농업이 차지하고 있다(강유진, 2014). 그러나 네팔 정부가 농업 발전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팔은 평야의 부족, 열악한 관계 시설, 구식 농업기술로 인해 만성적으로 낮은 생산성에 시달리고 있다. 제조업은 전체 GDP의 6.2%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프라의 부족과 잦은 파업 및 노동 분쟁, 그리고 좁은 국내 시장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Export-Import Bank of Korea, 2013).

2005년 발간된 국제노동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2002-2007 국가경제개발 계획의 핵심전략에 중소기업 개발 계획을 포함시킬 정도로 중소기업육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분야에 대한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노동기구는 네팔 정부의 정책적 문제로 정부차원의 중소기업 관련 정보의 부족, 가내수공업 분야에만 치중된 보조금 및 세금면제 지원, 인력 교육에만 치중된 지원 형태, 재정 지원의 부족, 정책 기구와 시스템의 부재 등을 지적하였다(ILO, 2005). 법적 제도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지하는 정책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위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보고서가 발간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네팔은 정치적 혼란, 관료주의, 편법과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이에 더하여 2015년의 대지진은 수도의 기반 시설과 인프라를 모두 파괴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The US Government, 2016c). Doing Business 2016에 의하면 네팔은 기업하기 좋은 국가 99위에 머물러 있으며, 신용을 얻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업 진행 절차가 매우 복잡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World Bank Group, 2016c).

### 1.2.4 페루

페루는 최근 광산업 위주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바 있다. 특히 2012년에는 경제성장률 6%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소비와 해외 투자유입을 제한하고 원자재 가격을 감소시키면서 2013년 이후 경제성장은 정체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14년에는 3.6%의 경제성장률에 그치고 말았다(Export-Import Bank of Korea, 2016).

정부의 부패와 관료주의의 만연, 그리고 사법체계의 비효율에도 불구하고(The UK Government, 2016a; The US Government, 2016d) Doing Business 2016에 의하면 페루는 기업하기 좋은

국가 50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높은 순위이다(World Bank Group, 2016d). 페루는 안정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으며, 국가주도의 강력한 경제 성장 정책으로 지난 십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The UK Government, 2016a).

### 1.2.5 르완다

1994년 르완다 대학살 이후 카가메 정부는 경제사회적 인프라를 되살리는 개혁을 단행했다. 정부는 화해(Reconciliation), 개혁(Reform), 재건(Reconstruction), 그리고 지역안정(Regional Stability)의 4R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르완다는 2000년대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하였는데, 2013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GDP 성장률은 7%를 넘어섰다(World Bank, 2016).

대학살 이후의 르완다의 경제 회복에 대해서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카가메 정부의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IMF, 2013; Tobias & Boudreaux, 2009). 기업성장에 대한 르완다의 집중은 수출과 국내투자 및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켰다. 또한, 르완다는 비즈니스 규제개혁을 위해 강력한 제도 체계를 만들었는데, 융자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고 창업 절차를 간소화했다(World Bank, 2013). 또한 경제활동과 통상에 관련된 법 집행도 실시하게 되었는데 2008년도부터 상업법정이 운영되고 있고 파산 규정과 증재 법 등도 제정되었다. 관세와 세금에 대한 법률도 2011년부터 수정하여 집행되고 있다(The UK Government, 2016b).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Doing Business 2016은 르완다의 순위가 8년만에 143위에서 62위로 뛰어올랐다고 보고했다(World Bank Group, 2016e). Forbes의 Strauss는 현재 IBM, Microsoft, Intel과 같은 IT기업들이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다양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Strauss, 2014). 르완다 정부 역시 중소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가를 위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자 기업가정신 촉진, 창업을 위한 환경과 제도 개정 등을 포함하는 5대 정책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창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Government of Rwanda, 2016).

## 1.3. 연구방법 및 가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5개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도국 5개국의 잠재적 기업가정신을 확인하고자 한다. 회귀분석을 통해 전체 5개국 응답자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이 문화적 변수인 불확실성 회피성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Mueller & Thomas(2001)는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변수를 연구하였는데, 불확실성 회피성이 낮은 문화일수록 혁신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도 위 연구와 마찬가지로 5개국 응답자들도 불확실성 회피성이 낮을수록 혁신성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가설 1: 5개국 응답자들의 기업가적 지향성 변수는 낮은 불확실성 회피성 문화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1-1: 5개국 응답자들의 혁신성은 낮은 불확실성 회피성 문화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로, 5개국 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과 문화적 변수를 성별에 따라 비교하고, 양 변수 사이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다. 이를 통해 5개 개도국의 잠재적 기업가정신의 양상은 어떠하며,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남녀의 기업가정신의 차이 비교를 통해 적절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위의 연구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5개국 남학생 응답자들의 기업가적 지향성 변수가 여학생 응답자들의 기업가적 지향성 변수보다 높을 것이다.**

2-1: 5개국 남학생 응답자들의 혁신성 변수가 여학생 응답자들의 혁신성 변수보다 높을 것이다.

2-2: 5개국 남학생 응답자들의 내재적 통제력 변수가 여학생 응답자들의 내재적 통제력 변수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3: 5개국 남녀 응답자들의 기업가적 지향성 변수는 불확실성 회피성이 커질수록 감소한다.**

3-1: 5개국 남학생 응답자들의 혁신성 변수는 불확실성 회피성이 커질수록 감소한다.

3-2: 5개국 여학생 응답자들의 혁신성 변수는 불확실성 회피성이 커질수록 감소한다.

<표 2> 회귀분석 모델

요인		문항수
종속변수	기업가적 지향성*	-
	혁신성	4
	내재적 통제력	5
독립변수	불확실성 회피성	3

## II. 선행연구

### 2.1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에 대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가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는데, 18세기 이전에는 ‘상인’이라는 의미의 실업가, 고용주, 소유주의 의미로 사용되어왔으나 18세기 초에 프랑스경제학자 Richard Cantillon에 의해서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통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며,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 되었다. 20세기 이후 Schumpeter를 통해서 기업가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이 확립되게 되는데, 그는 기업가를 ‘혁신적인 기능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여 소유주 또는 일반경영자와 구별하였다(고명숙 외, 2015). 민경호(2006)은 기업가와 경영자의 차이를 <표 3>과 같이 비교 서술하였다.

<표 3> 기업가와 경영자 비교

기업가	경영자
특정한 기회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하며, 외부자원의 활용과 시장지향적인 태도	내부자원의 효율적인 최적화에 주력
현실적이고 단기기에 사업 기회를 포착, 활용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사업 기회 활용
비체계화된 의사결정	체계적인 의사결정
다양한 비공식 네트워크를 가진 평면조직	계층조직을 전제로 수직화된 관료조직

기업가정신 연구는 최근 많은 연구자들과 기업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이 학문 분야로 자리를 잡는지는 30년도 채 되지 않았다. 경제 발전에 있어서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한 Schumpeter의 연구를 제외하면, 기업가정신과 중소기업에 관한 연구는 1970~198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중소기업과 구분하여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서의 기업가정신 연구의 역사는 1990년대에서야 시작되었다. 2000년대에는 기업가정신 연구가 세부화되어 기업가의 자본 조달 및 벤처캐피탈, 기업가 네트워크 및 사회적 자본, 기업가적 과정 및 창업기업 경영, 여성 기업가 및 소수인종, 이민자들에 의한 창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성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최근 10-20년간의 기업가정신 연구의 양적 성장과 연구분야의 다양화 경향은 유력한 경영 저널에서의 기업가정신 연구의 지위 향상 뿐 아니라 많은 기업가정신 전문 학술지를 탄생시켰다 (김영환·양태웅, 2013).

기업가정신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몇몇 학자들은 기업가정신을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New Business Cre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Aldrich, 1992; Davidsson & Wiklund, 2001; Low & MacMillan, 1988; Van de Ven, 1992; Venkataraman, 1997). 여기서 ‘새로운 사업’이란 단지 창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업들이 내부적인 사업체를 새로 만든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Stevenson과 Timmons의 정의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Stevenson et al.(1994)는 기업가정신을 “현재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Timmons(1994)는 기업가정신을 “기회에 초점을 두고, 총체적 접근방법과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추론/행동 방식”으로 정의하여, 기업가정신을 사고의 방식 뿐만 아니라 행동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배종태·차민석(2005)는 Stevenson과 Timmons의 정의를 통합하여 기업가정신

\* 기업가적 지향성 변수는 혁신성과 내재적 통제력의 곱이므로 따로 질문을 만들지 않았다.

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 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으로 정의하였다.

## 2.2 기업가적 지향성

이전부터 개인의 기업가적 지향성에 대한 연구와 이것을 촉진하는 환경요인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먼저 개인의 기업가적 지향성에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Kim(2015)은 창업가의 어떤 특성이 창업 동기와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Babb & Babb(1992)의 연구는 기업 설립자와 비설립자를 나누는 성향적 특징으로 성취욕, 감정적 안정성을 뽑았고 Rauch & Frese(2007)는 기업가정신을 유발하는 개인 성격 특징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자기효능감, 혁신성, 스트레스 통제력, 독립 욕구, 진취적 성격이라고 언급하였다. 김범성(2012)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같은 기업가적 지향성이 창업의도, 창업여부 그리고 창업성공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Yoo(2015)는 창업자의 자기효능감과 자율성이 창업에 대한 내재적 동기의 선행조건이 되며 내재적 동기는 위험감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험감수성은 창업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한다.

Mueller & Thomas(2001)는 기업가의 성향에 대한 다른 연구들에서 제시한 성취욕, 혁신성,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조절능력, 감정적 안정성, 독립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과 같은 여러가지 기업가적 지향성과 특징들 중에서도 기업가적 잠재력과 관련된 심리적인 특징을 ‘내재적 통제력’와 ‘혁신성’으로 보고 이 두 가지 심리적 특성에 집중하여 기업가정신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Mueller & Thomas(2001)가 제시한 혁신성과 내재적 통제력의 두 가지 성향을 기업가적 잠재력의 핵심 요소로 보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혁신성은 기업가정신에 관한 슈페터(Schumpeter, 1934)의 초기 연구에서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진 기업가적 지향성으로 드러커(Drucker, 1985)에게도 집중을 받았으며 위에서 언급된 연구들 중에도 Rauch & Frese(2007)는 혁신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재적 통제력 역시 기업가정신의 심리학적 특성들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연구된 영역 중 하나(Perry, 1990)로 위에서 언급된 Rauch & Frese(2007)의 연구는 진취성, 스트레스 통제력과 같이 통제력과 관련된 성향들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2.2.1 내재적 통제력

심리학에서는 감각 제어와 다양한 상황 하에서 이것이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Strickland, 1989). Rotter(1966)는 통제력(Locus of Control)이라는 개념을 창시하여 위의 연구 분야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Rotter에 따르면 한 개인은 개인의 통제와 이해 안에서 혹은 그것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현상의 결과물을 인지한다. 내재적인 사람(An “Internal”)은 개인의 능력, 노력 혹은 기술에 의해 결과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반면에, 외재적인 사람(an “External”)은 개인의 통제 밖의 힘이 결과를 결정한다고 믿는다(Rotter, 1966).

내재적 통제력(Internal Locus of Control)은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심리적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Perry, 1990). Mueller & Thomas(2001)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내재적 통제력과 관련된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한다. 만약에 누군가 벤처사업의 결과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개인은 실패의 위험이 가득한 창업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과 능력에 대한 인지가 새로운 벤처 사업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기업가들은 외재적 통제요소보다 내재적 통제력에 더 집중하게 된다.

### 2.2.2 혁신성

기업가정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Schumpeter는 혁신성을 기업가의 가장 핵심적인 성향 중의 하나로 보았다. Schumpeter(1934)는 기업가의 역할을 변화의 촉진제로 정의하였고, 기업가를 새로운 기회들을 포착하는 도구이자 아이디어뱅크이자 행동의 주체로 규정하였다. Drucker(1985)는 혁신을 기업가의 특별한 도구라고 보았다. Carland et al.(1984)는 혁신적인 전략 수행이 일반적인 소상공인과 기업가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언급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기업가들이 비기업가들보다도 혁신적이라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 Sexton & Bowman-Upton(1986)은 창업과 기업에 관련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일반 비즈니스 전공 학생들보다 더 혁신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Carland, et al.(1988)은 기업가들이 소상공인에 비해서 혁신에 대한 더 높은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Smith & Miner(1985)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의 설립자들이 다른 경영포지션에 있는 개인들보다도 혁신 영역에 있어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얻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연구들은 혁신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Shane et al.(1991)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추구, 혁신하고자 하는 기회들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어왔다. 국제적인 연구들에서도 혁신하고자 하는 기회는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자주 언급된 동기였다(Scheinberg & MacMillan, 1988; Blaise et al., 1990).

이처럼 혁신성은 기업가들의 특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로 여러 연구자들이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기업가적 지향성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도 내재적 통제력과 더불어 혁신성을 기업가의 성향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지표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 2.3 기업가적 지향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요소-불확실성 회피성

Hofstede(1980)는 40여개 나라의 88,000명의 IBM 근로자들과 고용인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국가별 문화적 가치관을 구별하는 척도를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척도는 ‘권력 거리’로 부하들을 그들의 상사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감정적 거리를 뜻한다. 두 번째는 ‘불확실성 회피성’이며 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미지의 상황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세 번째 척도는 ‘개인주의’로 사회가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어느정도 강한가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마지막 척도는 ‘남성성-여성성’으로 얼마나 과업 지향성인지 인간 지향성인지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Hofstede는 이러한 문화적 특징들과 기업가정신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러 기업가정신 연구들이 Hofstede의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Hofstede의 문화 척도를 활용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정태흠·유효상(2012)는 국가문화가 기업가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기업가정신이 높은 수준의 개인주의, 낮은 수준의 불확실성 회피, 낮은 수준의 권력 간격, 그리고 높은 수준의 남성다움 문화에 의해 촉진된다는 전통적 가설에 대해서 평가했다.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 리포트의 총 48개 국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통적 가설과 달리 총 초기 기업가적 활동은 개인주의와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 초기 기업가적 활동은 다른 세 문화변수인 권력간격, 남성다움, 그리고 불확실성 회피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또한 개선형 창업동기가 생계형 창업동기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개인주의, 낮은 수준의 남성다움, 그리고 낮은 수준의 불확실성 회피에 비례하였다. Mueller & Thomas(2001)는 기업가적 잠재력과 관련된 심리적인 특징을 내재적 통제력과 혁신성으로 보고 이 두 가지 심리적 특성이 어떤 문화에서 더 빈번해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Hofstede의 네 가지 문화 척도 중에서 두 가지 척도-개인주의, 불확실성 회피성-에 집중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주의적인 문화권에서 내재적 통제력이 증가하며, 불확실성 회피성이 약한 문화권에서 혁신성이 증가한다. 이에 더하여, 내재적 통제력과 혁신성이 통합된 개념인 ‘기업가적 지향성’은 전체주의적이며 높은 불확실성 회피 문화보다 개인주의적이고 낮은 불확실성 회피 문화권에서 나타나기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

본 사례 비교연구에서는 기업가적 지향성 변수인 ‘내재적 통제력’, ‘혁신성’과 기업가적 지향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변수인 ‘불확실성 회피성’에 집중하였다. 기존 Mueller & Thomas(2001)의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회피성 변수와 개인주의 변수와의 관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으나 본 사례연구에서는 불확실성 회피성과 혁신성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III. 설문조사 결과

### 3.1 조사 대상자의 특성

본 설문의 유효한 설문조사 응답자는 네팔 81명, 르완다 95명, 몽골 59명, 캄보디아 69, 페루 71명으로 르완다의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몽골의 응답자가 가장 작았다. 총 응답자는 375명이며 각 국가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국에서 설문은 2013-2014년도에 대학교수의 지도하에 시행되었으며, 몽골, 캄보디아, 페루에서는 각각 몽골어, 크메르어, 스페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네팔과 르완다에서는 영어를 모국어 또는 제2외국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 설문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5개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성별 응답자 수는 남성 184명 여성 191명으로 여성 응답자가 7명 더 많다.

<표 4>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유효한 응답자 수		합계
		성별		
		남	여	
국가별	네팔	40	41	81
	르완다	70	25	95
	몽골	8	51	59
	캄보디아	33	36	69
	페루	33	38	71
총 계		184	191	375

### 3.2. 문항구성

설문조사 문항은 총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국가의 응답자들이 느끼는 자국의 문화적 경향성을 묻는 질문인 ‘불확실성 회피성’ 질문과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묻는 ‘내재적 통제력’, ‘혁신성’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설문지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지 선택문항을 사용하였다. 질문은 각 영역별로 ‘불확실성 회피성’에는 3문항, ‘내재적 통제력’에는 5문항, ‘혁신성’에는 4문항을 배정하였다. 본 연구는 Muller & Thomas(2001)의 연구와 같이 기업가적 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 변수를 개인의 기업가적 지향성인 혁신성과 내재적 통제력을 활용하여 만들었다. 기업가적 지향성은 혁신성과 내재적 통제력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각 문항은 Mueller & Thomas(2001)가 사용한 질문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Mueller & Thomas(2001)는 불확실성 회피성에 대한 질문은 Hofstede(1980)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내재적 통제력에 대한 질문은 Rotter(1966)의 연구에서 사용한 Rotter I-E Scale을 수정하여 적용하였고, 혁신성에 대한 문항은 Jackson Personality Inventory Manual(JPI)의 문항을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표 5> 설문조사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

측정변수	요인			신뢰 계수
	1	2	3	
불확실성 회피성	0.0937	0.1461	0.5610	0.5555
	-0.1502	0.0967	0.4265	
	0.1316	0.0156	0.5436	
내재적 통제력	0.5699	0.0889	0.2681	0.7151
	0.6385	-0.1015	-0.0293	
	0.4645	0.0077	0.0716	
	0.5271	0.0636	0.0491	
	0.6441	-0.0735	-0.0036	
혁신성	-0.0918	0.5456	0.0138	0.6039
	-0.0614	0.6715	0.1040	
	0.3037	0.4050	0.0397	
	0.0481	0.4036	0.0864	
고유값	1.7963	1.1341	0.8925	-
설명변량	0.6109	0.3857	0.3035	
누적설명변량	0.6109	0.9965	1.3000	
KMO of sampling adequacy.	0.7075			

질문 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에서 각 질문의 KMO의 평균 값은 0.7075이며 모든 문항에서 KMO의 값은 0.60 이상이였다. 또한 문항에 대한 Cronbach alpha값은 모든 영역에서 0.5이상이였다. 불확실성 회피성의 신뢰성의 값이 0.6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값은 기존의 유사 연구들 (Oyserman, 1993; Singelis et al., 1995; Triandis & Gelfand, 1998)에서도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 3.3. 자료분석

5개국 응답자들은 각 질문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에 하나를 선택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수치화하였고, 각 질문의 내용에 따라 역순으로 배점한 경우도 있다. 질문지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불확실성 회피성, 내재적 통제력, 혁신성을 묻는 질문으로 나뉘어 있다.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을 합산하여 수치화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3.1. 국가별 비교 분석

<표 6> 국가별 평균 및 표준편차 비교 분석

국가 변수	평균					표준편차				
	네팔	르완다	몽골	캄보디아	페루	네팔	르완다	몽골	캄보디아	페루
불확실성 회피성	6.99	10.65	6.27	8.23	7.62	1.80	2.37	1.58	1.42	1.53
내재적 통제력	17.44	17.31	14.94	16.07	15.58	3.44	3.86	3.54	2.96	4.45
혁신성	15.55	16.28	13.73	13.57	15.07	2.12	2.21	2.18	1.75	2.64
기업가적 지향성	273.28	281.24	204.20	217.61	234.82	72.39	72.16	55.43	48.46	83.46

각 영역별 국가별 평균 및 표준편차 비교 분석 결과는 위의 <표 6>와 같다. 문화적 변수인 불확실성 회피성의 평균은 르완다, 캄보디아, 페루, 네팔, 몽골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가적 지향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내재적 통제력 영역에서는 네팔, 르완다, 캄보디아, 페루, 몽골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며, 혁신성 영역에서는 르완다, 네팔, 페루, 몽골, 캄보디아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내재적 통제력과 혁신성을 통합한 기업가적 지향성의 평균은 르완다, 네팔, 페루, 캄보디아, 몽골의 순서이다.

#### 3.3.2. 성별 비교 분석

<표 7> 5개국 성별 비교 분석

변수	국가	평균		표준편차	
		남	여	남	여
불확실성회피성		8.74	7.58	2.42	2.26
내재적 통제력		16.99	15.85	4.04	3.48
혁신성		15.52	14.49	2.36	2.40
기업가적 지향성		264.10	230.34	76.96	68.40

<표 8> F-test

변수	가설	H <sub>0</sub> : ratio=1 (ratio=standard deviation(sd) of female students/ sd of male students )		
		H <sub>a</sub> : ratio < 1	H <sub>a</sub> : ratio ≠ 1	H <sub>a</sub> : ratio > 1
불확실성 회피성		0.1729	0.3458	0.8271
혁신성		0.5868	0.8264	0.4132
내재적 통제력		0.0208*	0.0416*	0.9792
기업가적 지향성		0.0539	0.1078	0.9461

※ \*\*\* p<0.001; \*\* p<0.01; \* p<0.05.

<표 9> t-test

변수	가설	H <sub>0</sub> : diff = 0 (diff=mean of female students - mean of male students)		
		H <sub>a</sub> : diff < 0	H <sub>a</sub> : diff ≠ 0	H <sub>a</sub> : diff > 0
불확실성 회피성		0.0000***	0.0000***	1.0000
혁신성		0.0000***	0.0000***	1.0000
내재적 통제력		0.0017**	0.0035**	0.9983
기업가적 지향성		0.0000***	0.0000***	1.0000

※ \*\*\* p<0.001; \*\* p<0.01; \* p<0.05.

<표 7>, <표 8> 그리고 <표 9>에서는 각 항목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성별로 제시하였고 이를 F검정과 t검정을 통해서 비교하였다. 먼저 F검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귀무가설 H<sub>0</sub>를 ‘5개국 여학생들의 표준편차/ 5개국 남학생들의 표준편차=1’이라고 세웠으며, 대립가설 H<sub>a</sub>는 ‘5개국 여학생들의 표준편차/ 5개국 남학생들의 표준편차≠1’라고 세웠다. t검정의 귀무가설 H<sub>0</sub>는 ‘5개국 여학생들의 표준편차 - 5개국 남학생들의 표준편차=0’이며 대립가설 H<sub>a</sub>는 ‘5개국 여학생들의 표준편차 - 5개국 남학생들의 표준편차≠1’이다.

F검정과 t검정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 변수인 ‘불확실성 회피성’의 영역에서 F검정을 실시하면 대립가설이

기각되어 두 성별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결과를 얻게 된다. 동분산 t검정을 실시하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1.1634만큼 더 불확실성 회피성이 강한 문화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기업가적 지향성 변수 중에 ‘혁신성’의 변수는 F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분산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동분산 t검정을 실시하면 유의한 수준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1.0242만큼 높은 혁신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재적 통제력’의 변수는 F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두 분산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분산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1.1464만큼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동분산 t검정에서도 동일한 수치를 얻을 수 있었다. 혁신성과 내재적 통제력을 조합한 ‘기업가적 지향성’ 영역에서는 양 분산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남학생의 수치가 여학생에 비해 33.7682만큼 높았다.

요약하자면, 5개국 남학생들은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들보다 높은 평균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설 2, 2-1 그리고 2-2와 일치하고 있다.

### 3.3.3. 문화와 기업가정신 회귀분석

<표 10> 불확실성 회피성과 다른 기업가적 지향성 변수들과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내재적 통제력	혁신성	기업가적 지향성(혁신성 * 내재적 통제력)
전체	불확실성 회피성	0.0838 (0.305)	0.1123* (0.031)	2.6351 (0.100)
남		-0.1198 (0.333)	-0.0390 (0.590)	-2.9749 (0.207)
여		0.1909 (0.088)	0.1790* (0.020)	5.3824* (0.014)

\* \*\*\*  $p < 0.001$ ; \*\*  $p < 0.01$ ; \*  $p < 0.05$ .

<표 10>에서는 응답자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가적 지향성 변수들과 문화적 변수인 불확실성 회피성을 회귀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는 내재적 통제력, 혁신성, 기업가적 지향성이며, 독립변수는 불확실성 회피성이다. 먼저, 5개국 전체 응답자들의 결과를 보면 혁신성과 불확실성 회피성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불확실성 회피성이 증가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혁신성이 0.1123만큼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기업가적 지향성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남학생 응답자들의 결과를 보면 기업가적 지향성 변수들과 불확실성 회피성 사이에 어떠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불확실성 회피성에 의해 혁신성과 기업가적 지향성이 정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확실성 회피성 변수에 의해 혁신성은 0.1790만큼, 기업가적 지향성은 4.8238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설 1, 1-1과 가설 3, 3-1, 3-2와 모두 일치하지 않고 있다. 5개국 전체 응답자들의 기업가적 지향성 변수는 불확실성 회피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혁신성은 가설과 반대로 불확실성 회피성 문화 변수와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가적 지향성 변수와 혁신성 변수는 불확실성 회피성 변수와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가설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와는 다르며 Mueller & Thomas(2001)는 불확실성 회피성이 클수록 혁신성과 기업가적 지향성이 줄어든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 IV. 해석 및 제언

<표 11> 가설검증결과

가설	기각 여부
가설 1: 5개국 응답자들의 기업가적 지향성 변수는 낮은 불확실성 회피성 문화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가설 1-1: 5개국 응답자들의 혁신성은 낮은 불확실성 회피성 문화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가설 2: 5개국 남학생 응답자들의 기업가적 지향성 변수가 여학생 응답자들의 기업가적 지향성 변수보다 높을 것이다.	미기각
가설 2-1: 5개국 남학생 응답자들의 혁신성 변수가 여학생 응답자들의 혁신성 변수보다 높을 것이다.	미기각
가설 2-2: 5개국 남학생 응답자들의 내재적 통제력 변수가 여학생 응답자들의 내재적 통제력 변수보다 높을 것이다.	미기각
가설 3: 5개국 남녀 응답자들의 기업가적 지향성 변수는 불확실성 회피성이 커질수록 감소한다.	기각
가설 3-1: 5개국 남학생 응답자들의 혁신성 변수는 불확실성 회피성이 커질수록 감소한다.	기각
가설 3-2: 5개국 여학생 응답자들의 혁신성 변수는 불확실성 회피성이 커질수록 감소한다.	기각

가설 검증 결과는 <표 11>과 같다. 가설 2, 2-1, 2-2의 결과를 볼 때, 5개국의 잠재적 기업가적 지향성이 남성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업가정신을 구현하는 다양한 기업가적 지향성은 진취성, 성취욕, 도전정신 등 전통적으로 남성성을 표현하는 특성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결과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여성 기업가정신 개발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여성의 기업활동 참여의 측면, 즉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 여성 기업가정신 개발은 중요한 과제이다. 무한 경쟁 시장 속에서 기존 기업의 시스템은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기업 시스템과 리더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전통적 기업 시스템과 남성 리더십을 대체할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보여주고 있듯이 기업가정신은 반드시 창업과 연관되어 있는 개념으로만 볼 수 없으며, 개개인의 창

조직 능력 발휘를 위한 역량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의 자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5개국 내의 여성 기업가정신 개발은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며 향후 5개국은 여성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장려 할 필요성이 있다.

가설 1, 1-1, 가설 3, 3-1, 3-2는 불확실성 회피성과 혁신성 사이의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Mueller & Thomas(2001)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불확실성 회피성과 혁신성이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업가적 활동과 불확실성 회피성과의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정태흠·유효상(2012)의 연구와도 다른 결과이다. 위 결과는 기업가정신과 문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기존 기업가정신 연구에 있어서 주요한 문화적 변수 중 하나로 설정되었던 ‘불확실성 회피성’ 변수가 과연 기업가정신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각각의 연구에서 보여지는 상이한 결론은 ‘불확실성 회피성’을 기업가정신 연구에 활용 가능한 변수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둘째, 문화적 변수를 측정하는 방법론에 대한 의문이다. Mueller & Thomas(2001)의 연구와 본 사례 비교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문화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와는 다른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불확실성 변수와 혁신성 사이에서 양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의 유무에 대한 의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문화적 변수와 기업가적 지향성 변수 사이에 또 다른 매개 변수 혹은 양 변수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3개 대륙의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우리정부(외교부)의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가 중 5개국을 선정하여 기업가정신을 분석하고 사례를 비교하였다. 각 영역에 대한 국가별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화적 변수인 불확실성 회피성의 평균은 르완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캄보디아, 페루, 네팔, 몽골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가적 지향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내재적 통제력 영역에서는 네팔에 이어 르완다, 캄보디아, 페루, 몽골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며, 혁신성은 르완다, 네팔, 페루, 몽골, 캄보디아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내재적 통제력과 혁신성을 통합한 기업가적 지향성의 평균은 르완다, 네팔, 페루, 캄보디아, 몽골의 순서이다.

성별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F-test와 t-test의 결과를 통해 5개국의 여학생 응답자 보다 남학생 응답자의 영역별 점수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불확실성 회피성과 내재적 통제력, 혁신성, 기업가적 지향성의 회귀분석 결과는 전체 응답자들의 경우 불확실성 회피성이 증가할수록 혁

신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 분석에서는 남학생 응답자들에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으나, 여학생 응답자들에서는 불확실성 회피성이 클수록 혁신성과 기업가적 지향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설 검증 결과는 <표 11>와 같다.

위 결과는 기존의 불확실성 회피성과 기업가정신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정태흠·유효상(2012)의 연구와도 다른 결과이며 불확실성 회피성이 증가할수록 기업가정신이 감소한다는 Mueller & Thomas(2001)의 연구와도 다른 결과이다.

이 사례 비교연구에서는 우리 정부의 중점협력국가 24개국 전부를 비교 분석하지 못하고, 대표적 5개국만 선정하여 다루었다. 24개국 전체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와는 달리 최빈국과 개도국에서의 기업가정신 형성 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 문화 변수와 맞물려서 기업가적 지향성이 증가하는 형태의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 질 수 있는지 응답자들에 대한 심도 깊은 인터뷰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회피성과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파악했다면, 불확실성 회피성과 기업가정신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변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REFERENCE

강유진(2014). 아시아 6개 개발도상국의 경제 현황 및 특징, *국제경제리뷰* 2014-4, 한국은행

고명숙·고혁진·김용태·김진수·이채원·최종인·황보운(2015). *손에 잡히는 기업가정신*,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기업가정신재단, 서울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5). 제 2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 자료. [http://www.odakorea.go.kr/hz.bl1tn2.ODACmtRsItSIPL.do?brd\\_seq=24&bl1tn\\_div=oda](http://www.odakorea.go.kr/hz.bl1tn2.ODACmtRsItSIPL.do?brd_seq=24&bl1tn_div=oda)

김영환·양태용(2013). 기업가정신 전문 유명 국제학술지 논문 검토를 통한 기업가정신 연구 동향 분석, *중소기업연구*, 35(3), 143-172

민경호(2006). *기업가정신*, 서울: 무역경영사

정태흠·유효상(2012) 국가문화가 기업가적 활동과 창업동기에 미치는 역할,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5(4), 29-55

Aldrich, H. E.(1992). Methods in Our Maddness? Trends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In: D. L. Sexton and J.D. Kasarda (Eds.), *The State of the Art Entrepreneurship*, Boston: PWS-Kent.

Babb, E. M.. & Babb, S. V.(1992). Psychological Traits of Rural Entrepreneurs,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21(4), 353-362.

Bae, Z., & Cha, M.(2005). Recent Trend in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Management Research: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American Journals (1998-2004),

-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8(3), 57-94.
- Blaise, R., Toulouse, J., & Clement, B.(1990).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based on personal equation, hierarchical analysis, and other statistical methods, In R. Gomulka. and W. Ward (Eds), *Proceedings of the 39th World Conference of Small Business*, WashingtonD.C.: International Council.
- Cambodia Ministry of Commerce.(2016). *MoC 101 Incubator*, Retrieved October 20 from: <http://www.moc.gov.kh/en-us/Trade-Info/MoC-101-Incubator>
- Carland, J. W., Carland, J. C., Hoy, F., & Boulton, W. R.(1988). Distinctions between entrepreneurial and small business ven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5(1), 98-103.
- Carland, J. W., Hoy, F., Boulton, W. R., & Carland, J. C.(1984). Differentiating entrepreneurs from small business owners: A conceptual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9(2), 354-359.
- Committe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15), *The 21<sup>st</sup> Discussion Agendas of Committe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ittee* Retrieved October 20, from: [http://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ltSIPL.do?brd\\_seq=24&bltn\\_div=oda](http://www.odakorea.go.kr/hz.bltn2.ODACmtRsltSIPL.do?brd_seq=24&bltn_div=oda)
- Dana, L. P.(2007), *Asian models of entrepreneurship: from the Indian Union and the Kingdom of Nepal to the Japanese Archipelago: context, policy and practice* (Vol.4). World Scientific.
- Davidsson, P., & Wiklund, J.(2001). Levels of Analysis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Current Research Practice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5(4), 81-99.
- Drucker, P.(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ractice and principles*, New York:Harper and Row.
- Export-Import Bank of Korea(2013), *The National Credit Rating Report-Nepal*,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 Export-Import Bank of Korea(2016), *The National Credit Rating Report-Peru*,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 GanOch, E., & Ahn, J.(2014), *Applying South Korean Development Strategies to Mongolian Economy with Emphasis on Development, Trade and Investment Policies of its Natural Resources Sector*,
- Government of Rwanda.(2016).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Policy*, Retrieved October 20 from: [http://www.minicom.gov.rw/fileadmin/minicom\\_publications/policies/SME\\_Devt\\_policy\\_V180610.pdf](http://www.minicom.gov.rw/fileadmin/minicom_publications/policies/SME_Devt_policy_V180610.pdf)
- Hofstede, G.(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CA: Sage Publications.
- ILO(2005). *A Report on Micro and Small Enterprise Policy Review in Nepal*, Kathmandu: ILO
- ILO(2015). *Formalizing Enterprises in Mongolia: Challenges and Policy Directions*, Ulaanbaatar: ILO
- IMF(2013). *Rwanda: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IMF Country Report No. 13/360, Washington DC: IMF
- Jeong, T. H., & Ryou, H. S.(2012). The Influence of National Culture on Entrepreneurial Activity and Motive,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15(4), 29-55.
- Kang, Y. J.(2014). *The Economy Features of Six Asian Developing Countries The International Economy Review 2014-4*, The Bank of Korea
- Kim, B.(2012). A Study on the Entrepreneur's Psychological Traits and Entrepreneurship, *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9(1), 119-152.
- Kim, Y. H., & Yang, T. Y.(2013). Researching Entrepreneurship over the Last Decade: A Challenge for the 21st Century,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5(3), 347-376.
- Kim, J.(2015). An international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four country comparison,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18(2), 1-14.
- Kiss, A. N., Danis, W. M., & Cavusgil, S. T.(2012).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research in emerging economies: A critical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7, 266-290.
- Ko, M., Ko, H., Kim, Y., Lee, S. & Jeon, H.(2015). *Introduction to Entrepreneurship*, Seoul: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
- Low, M. B., & MacMillan, I. C.(1988). Entrepreneurship: Past Research and Future Challenges, *Journal of Management*, 14, 139-162.
- Min, K. H.(2006). *Entrepreneurship*, Seoul: Muyokgyongyoung Pub.
- Mueller, S. L., & Thomas, A. S.(2001). Culture and entrepreneurial potential: a nine country study of locus of control and innovativeness, *Th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6(1), 51-75.
- Oyserman, D.(1993). The Lens of Personal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5), 993-1009
- Rauch, A., & Frese, M.(2007). Let's put the person back into entrepreneurship research: a meta-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owners' personality traits, business creation and success,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6(4), 353-385.
- Rotter, J. 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1), 1-28
- Royal Government of Cambodia.(2015). *Cambodia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2015-2025*,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Retrieved October 21 from: <http://www.cambodiainvestment.gov.kh/cambodia-industrial-development-policy-2015-%E2%80%932025-3.html>
- Park, C., & Kang, Y.(2010). A Comparative Study on Entrepreneurship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2(2), 225-246.
- Perry, C.(1990). After further sightings of the Heffalum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5(2), 22-31.
- Scheinberg, S., & MacMillan, I.(1988). An eleven country study of the motivations to start a business, In B. Kirchoff, W. Long, W. McMullan, K.H. Vesper, and W. Wetzel (Ed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Wellesley, MA: Babson College.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 Cambridge, MA: Harvard Press.
- Sexton, D. L. & Bowman-Upton, N. B.(1986). Validation of personality index: Comparativ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alysis of female entrepreneurs, managers, entrepreneurship students and business students, In R. Ronstadt, J. Hornaday, R. Peterson, & K. Vesper (Ed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Wellesley, MA: Babson College.
- Shane, S. A., Kolvereid, L., & Westhead, P.(1991). An exploratory examination of the reasons leading to new firm formation across country and gende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 431-446.
- Singelis, Theodore, Harry C. Triandis, Dharm R S. Bhawuk Michele J. Gelfand(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Research*, 35, 240-275.
- Smith, N. R., & Miner, J. B.(1985). Motivational considerations in the success of technologically innovative entrepreneurs: Extended sample findings, In J. Hornaday, E. Shile, J. Timmons, and K. Vesper (Ed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Wellesley, MA: Babson College.
- Sokthol, N.(2015).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Manufacturing SMEs Linkages in Cambodia: Lesson from Singapore*,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Global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 Handong Global University, Pohang, Korea.
- Stevenson, H. H., Roberts, M. J. & Grousbeck, H. I.(1994). *New Business Ventures and The Entrepreneur*, New York: McGraw-Hill/Irwin
- Strauss, K.(2014). *Let's Build A Tech Startup In. Rwanda?*, Retrieved October 20, from: <http://www.forbes.com/sites/karstenstrauss/2014/04/01/lets-build-a-tech-startup-in-rwanda/#45bc124b1c40>
- Strickland, B. R.(1989). Internal-external control expectancies, *American Psychologist*, 44(1), 1-12.
- The UK Government.(2016a). *Doing Business in Peru: Peru Trade and Export Guide*, Retrieved October 20,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xporting-to-peru/exporting-to-peru#overview>
- The UK Government.(2016b). *Doing Business in Rwanda: Rwanda Trade and Export Guide*, Retrieved October 20, from:<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xporting-to-rwanda/exporting-to-rwanda>
- The US Government.(2016a). *Cambodia-Market Challenges| export.gov*, Retrieved October 20 from: <https://www.export.gov/article?id=Cambodia-market-challenges>
- The US Government.(2016b). *Mongolia-Market Challenges*, Retrieved October 20 from: <https://www.export.gov/article?id=Mongolia-Market-Challenges>
- The US Government.(2016c). *Nepal-Market Challenges*, Retrieved October 20 from: <https://www.export.gov/article?id=Nepal-Market-Challenges>
- The US Government.(2016d). *Peru-Market Challenges*, Retrieved October 20 from: <https://www.export.gov/article?id=Peru-Market-Challenges>
- Timmons, J.(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Boston: McGraw-Hill.
- Tobias, J. M., & Boudreaux, K. C.(2009),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in Conflict Reduction in the Post-genocide Rwanda Coffee Industry: Quantitative Evidence from a Field Study*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UN(2016).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Retrieved June 10, 2016, from: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8>
- Van de Ven, A. H.(1992). Longitudinal Methods for Studying the Process of Entrepreneurship, In: D. L. Sexton & J. D. Kasarda (Eds.), *The State of the Art Entrepreneurship*, Boston: PWS-Kent.
- Venkataraman, S.(1997). The Distinctive Domain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An Editor's Perspective, *Advances in Entrepreneurship, Firm Emergence, and Growth*, 3, 119-138.
- World Bank(2013). *Rwanda: Fostering prosperity by promoting entrepreneurship*, Doing Business 2013, 37-41
- World Bank(201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Retrieved 11 02, 2016, from : [http://databank.worldbank.org/data/reports.aspx?Code=NY.GDP.MKTP.KD.ZG&id=af3ce82b&report\\_name=Popular\\_indicators&populartype=series&ispopular=y](http://databank.worldbank.org/data/reports.aspx?Code=NY.GDP.MKTP.KD.ZG&id=af3ce82b&report_name=Popular_indicators&populartype=series&ispopular=y)
- World Bank Group(2016a). *Doing Business 2016: Measuring Regulatory Quality and Efficiency-economy profile Cambodia*,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World Bank Group(2016b). *Doing Business 2016: Measuring Regulatory Quality and Efficiency-economy profile Mongolia*,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World Bank Group(2016c), *Doing Business 2016: Measuring Regulatory Quality and Efficiency-economy profile Nepal*,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World Bank Group(2016d), *Doing Business 2016: Measuring Regulatory Quality and Efficiency-economy profile Peru*,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World Bank Group(2016e), *Doing Business 2016: Measuring Regulatory Quality and Efficiency-economy profile Rwanda*,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Yoo, B.(2015).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Autonomy on the Possibility of Start-up Success: Focus on Mediation Role of Intrinsic Motivation and Risk Taking,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7(2), 87-105.

# The Cultural Impacts on Establishing Potential Entrepreneurship: A Comparative Study on Cases of University Students in Cambodia, Mongolia, Nepal, Peru and Rwanda

Ahn, Jinwon\*  
Yoo, Daehyun\*\*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comparative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uncertainty avoidance on the potential entrepreneurship of five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results of survey implemented to under- and postgraduate students of five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ambodia, Mongolia, Nepal, Peru and Rwanda. Futhermore, it is another purpose to compare the results of respondents by gender and scrutinize what impacts of the uncertainty avoidance have on male and female student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First of all, the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 and postgraduate students of five countries. Questions of the survey were composed of three parts: Locus of Control and Innovativeness for the individu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Uncertainty Avoidance for the cultural variabl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variable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s getting higher when Uncertainty Avoidance variable is becoming higher. On top of that, this is shown even in the gender comparison. It is the totally different result from precedent studies that shows correlation of entrepreneurship and culture. On the other hand, men'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f five countries higher than women's according to the gender comparison.

*Keywords: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orientation, Uncertainty avoidance, Locus of control, Innovativeness*

---

\* Professor, School of Management & Economics, Handong Global University, ahn@handong.edu

\*\* Researcher,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ndong Global University, dhyoo@handong.edu